하나님 부자의 세상 보는 시각

(예레미야 35:1~19)

5.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부자의 세상 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부자의 세상 보는 시각'

이제 새해가 되어서 많은 덕담이 오고 갑니다. 대개는 '소원 성취 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오복에 포함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꼬집어서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만사형통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덕담들은 하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반항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자 되세요.'라고 덕담을 해주면 겉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없어서 기껏해야 부자 되라는 건가?'라고 받아칩니다.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총수에 대해 여론이 시끄러워도 속으로는 '할 게 없어서 재벌 총수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건강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랄 게 그렇게 없어서 건강 장수를 바라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항아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습니다. '부자 되고 재벌이 되고 싶을 만큼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고프고 굶주려 있을까? 건강이나 장수를 소원할 만큼 마음이 허기져있다니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자들은 정말로 세상을 이렇게 받아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자는 대형교회에 나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대형도 없고 소형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고, 십자가 너머의 하늘로 가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대형 예배당이나 대형 목회라는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대형 예배당이나 대형 목회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부자인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이나 되셔서 바랄 것이 그렇게 없어서 대형 예배당이나 대형 목회가 되길 바라나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부자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은 큰 야망이나 포부 혹은 비전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먹으면 해결되듯이 마음도 마냥 큰 것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곱빼기를 시키고 군만두와 탕수육까지 먹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부르고 나면 더는 음식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야망이나 비전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하는 이유는 마음의 허기짐이 남다르게 크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부자나 재벌총수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루어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계획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보면 세상은 거지 열전을 방불케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배가 너무 고파서 짜장면 곱빼기를 세 그릇은 먹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 하나님 부자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대체 얼마나 배고프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마음의 배고픔의 문제는 목사님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체 얼마나 배가 고프기에 천 억짜리 예배당을 간절히 원할까?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구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신년 덕담도 대부분이 이 배고픔의 규칙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 부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새해에 빌어주는 덕담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장은 앞뒤의 장들과 비교해볼 때에 시대적으로 20여년 정도 앞선 이야기입니다. 남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형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레미야가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20년 전 이야기를 꺼낸 것은 복지를 빼앗기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이 시대에 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일화를 보면 하나님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뱅이로 살면서 하나님을 흉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준을 갖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한 복지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복지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부족함을 느낄 때에는 대부분 스스로 세운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기준치 이상을 충족시켜도 결과는 만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지속하기 위해 갑질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기준치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면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되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 있었는데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가문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첫째 규정으로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는 둘째 규정이 나타납니다.
이들의 규정은 선민들의 율법이나 계명보다도 지키기 힘들 것같이 여겨질 정도입니다. 선민들에게서 율법이 그랬듯이 이들에게서도 이러한 규정은 시대를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당연해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규정은 요나답으로부터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300년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후 왕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북 왕국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군대사령관이었던 예후가 왕이 되기 전 북 왕국 이스라엘은 요람이 왕이었는데 이세벨의 섭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북 왕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원흉으로써 아합 왕의 부인이었고 요람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예후는 아합 왕가를 멸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아합의 왕자 70인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짓 책략으로 전국의 바알 숭배자들을 불러 모아 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때에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선 자가 바로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이라고도 불리는 요나답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는 곧 풍요와 다산의 추구입니다. 새해 덕담으로 '부자 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만

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주고받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레갑 족속은 반항아적인 존재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다고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번영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선전하는 모든 유명인들을 잡아서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풍요와 다산에서 기대하는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예후 왕조가 열리게 되는데 예후 왕은 오래지 않아 자신이 처단했던 우상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유지할지를 생각하고 규정을 정함으로써 자손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심하게 타락했던 북 왕국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과 족속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윽고 타락이 더욱 심하게 되자 이들은 남 유다로 내려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조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음을 두고 요나답과 레갑 자손들을 예로 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선민들보다도 여호와 신앙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율법보다 더 구속적인 자신들만의 규정까지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포도주를 음료로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삶의 결함이었습니다. 또 집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을 장막에만 거하라니 삶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규정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규정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해준 것입니다. 즉 세계관을 전달해준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있어야 이 규정들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을 볼 때에는 참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율법도 무거워서 못 지키는 마당에 더 무거운 굴레를 스스로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쁨과 만족을 터부시하는 금욕주의적 삶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터부시 한 것은 기쁨과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과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달랐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고 부흥함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규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설교에서 '하나님은 오래 된 볶음김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답이 한 일이 바로 자손들로 하여금 볶음김치를 찾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선민들은 반찬 취급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반찬이 없었습니다. 요나답이 규정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맹세는 레갑 자손의 삶을 상징적으로 요약하는 대목입니다.
포도주는 곧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나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상징입니다. 나머지 규정들은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기초를 두는 안정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가 없는 삶은 불안정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직장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사라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으로 상징되는 안정감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대상이나 상황보다도 우선적 현실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풍랑보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로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참수를 기다리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도 참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적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들도 이 세상의 삶이 불안할 때에 집을 지음으로써 안정된 토대를 구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우선적 현실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파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농사는 곧 부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부자 되기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돈 대신 하나님 부자가 되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에 전념한 것입니다. 파종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풍요와 다산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이 세상적인 부자 되기를 소원하지 않기 위해서 파종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생기는 결핍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창이 고급차 끌고 다니면 나도 동등한 차를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감을 하나님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포도주가 삶 전체를 총괄하는 기쁨의 상징이었다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인 포도원은 기쁨이 나오게 하는 오락거리이고 놀이거리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겠다는 결심입니다.
'장막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안정을 찾으려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거의 소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옮겨 다니는 장막에서의 삶은 항상 일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그렇기에 안정은 하나님과의 동거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갑 자손이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답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세상에 대한 시각은 반항아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굶주렸으면 저렇게 돈을 좇을까? 하나님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야 말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굶주린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동사무소 직원만 되어도 넘치게 여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동사무소 직원이 꿈이라고 하면 화를 내며 '꿈을 크게 가져야지 동사무소 직원이 무슨 말이냐?'라며 화부터 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자는 요나답의 시각을 가르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품는 이유가 마음이 배고파 죽겠다는 외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형 예배당과 대형 목회를 원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굶주렸으면 대형 교회를 꿈꿀까?'라는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덕담으로 '부자 되세요.'라고 합니다. 요나답이라면 '여보시오! 얼마나 배가 고프면 부자가 되겠다고 합니까?'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먹을 게 없으면 돈을 먹겠느냐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재벌2세들이 형제간에 서로의 자리를 놓고 치고받습니다.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재산과 지분을 지키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경제와 관련된 법률을 기묘하게 악용해서 총수의 자리에 오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러한 시각을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그 자손들 또한 같은 가르침을 반복하며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성도들에게 요나답의 시각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재벌 총수가 교회에 등록했다면 아마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히 많이 굶주린 사람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줍니다. 이 역시 특별히 많이 굶주린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존경하고 우러러 볼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조차 드러납니다. 은행에서 몇 백억 대출을 받아서라도 대형 예배당을 지었다는 목사님이 오면 작은 예배당을 가진 목사님은 한 발 물러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은 엄청나게 배고픈 사람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배부른 목사님이라면 상가 건물이면 어떻고 교인이 10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닦달해가며 전도를 내보냅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목사라면 오히려 배고픈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싶은 대로 당신을 주실 것임을 가

르쳐줘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70~80%는 대기업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먼저 재벌들에게 돌아가고 남은 돈이 투자되거나 분배될 텐데, 그 돈이 국내가 아니고 베트남 인도 중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수출액이 늘어나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깨려고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 개혁을 일으키려고 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잘못일까요?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잘못이 큽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레갑 자손의 시선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바뀐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60년 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견고하게 지속되어온 돈에 대한 배고픔은 절대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말은 풍요와 다산을 꿈꾸는 바알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런 바알 숭배에 빠져있을 때에 교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시각을 가르쳐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대대로 물려가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그 시각을 놓침으로 인해 그 폐해는 돌고 돌아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겪는 취업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놀랐던 것은 벤츠 같은 대기업이 우리나라처럼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업이 성장할수록 노동자의 임금도 같이 상승한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소한의 인건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떻게든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국내 투자를 꺼려하는 국내 기업들과는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굶주린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임을 교회가 가르쳐주어야만 했고, 세상에서 큰 야망과 원대한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교회가 불러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런 꿈을 꾸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계속 외쳤어야 하는데 세상과 하나가 되어 달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2019년은 하나님 부자가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가르쳐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라는 규정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재벌의 자리가 단순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 부자 된 자들에게는 그러한 자리가 얼마든지 건전하고 유익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고 그 자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거지의 열전이고 굶주린 자들의 열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 한 사람부터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레갑 자손이 추구하던 여호와 하나님 부자 되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답이 가르쳐준 세상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풍요와 다산을 좇는 바알 숭배의 나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여호와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답이 가르쳐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나 한 사람으로부터 활성화되고 전파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